

노인의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Influence of the Elderly Feeling of Self-Efficacy on Preparation after Retire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신근영, 고재욱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Kun-Young Shin(seolst@daum.net), Jea-Ug Ko(kojea62@daum.net)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S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16년 3월20일-4월1일 설문지 518부를 배부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효능감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둘째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과 간접 효과 모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이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에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 효능감은 경제적 준비가 미흡하지만, 사회적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음을 긍정적으로 알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생애 주기적 사회참여에 대한 기반구축과 지속할 수 있는 사회 공유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자본 강화책으로 사회적 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서비스의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자기 효능감 | 노후 준비 | 사회적 자본 | 노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cure the foundational data for analyzing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from the influences of the feeling of self-efficacy of the elderly on the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18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March 20 to April 1, 2016 for the elderly over 60 years old who were living in S city. Regarding the data, the SPSS 20.0 and the AMOS 20.0 were used. An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the following: First, if we take a look at the influences of the feeling of self-efficacy on social capital, the feeling of self-efficacy has the positive influences. And, second, the influences of the feeling of self-efficacy on the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also, are positive. Third, the influences of the social capital on the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too, are positive. As such, we can find out that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re shown. Lastly, we can find out that the feeling of self-efficacy ha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social capital and the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Consequently, although the feeling of self-efficacy is insufficient with regard to the economic preparations, we can positively find out that it was able to effectively derive the satisfaction in life by utilizing the social capital. In preparation for the super-aged society, the improvements and the expansions of the social programs and the services resulting from them are nee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regarding the life-periodical, social particip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ly-shared system that can be continued, and the policy of strengthening the social capital.

■ keyword : | Self-efficacy | the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 the Social Capitals | and the Elderly |

I. 서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생 후반기의 많은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축복이면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빨라, 앞으로도 노인 소득에 대한 공적 급여 비중의 작아 노인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고령화는 노인들의 늘어난 생애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즉,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를 가져오며, 가족의 부양부담이 늘어남과 더불어 홀몸 노인증가, 사회적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부족함과 복지재정 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후준비는 여유로운 생활의 보장과 삶의 만족과 함께 성공적인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 2015년 공적 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9.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국민연금은 89.8%로 급여종류로는 퇴직노령연금 87.9%, 유족연금은 12.4%, 장애연금 0.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3].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의 상실감과 우울증과 가족변화에 대한 핵가족화의 속에서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와 활동은 노인의 우울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4-6]. 노년기의 건강 악화, 경제적 능력 감소, 배우자와 동료, 친구 등의 상실로 가족이나 사회의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나이듦에 따라 노인의 4사고(四苦)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지역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은 배우자, 자녀, 친척과 친구, 이웃 등과 같은 지역 사회와의 동시에 연계된 노인은 가장 강한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관계의 다양한 측면이 개인의 삶의 질과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은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양적 개체라 할 수 있다[7-11].

그러므로 노후준비로 인한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면서 노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그와 관련된 역량과 노인의 심리 정신적, 신체적

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되며,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와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13].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는 시기인 만큼 생애에 대한 성찰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하게 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2][14][15].

삶의 전환점에 이르러 불안정한 개인들에게 심리·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나 임파워먼트에도 유의미하며, 삶을 설계하고 목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16-18].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활용도를 향상시켜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자본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 상태의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삶에 영향을 준다[19].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세대의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이미 노인이 된 노인세대들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 효능감과 노후준비

Bandura의 연구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 갖는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행동과 연관성을 갖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떠한 결과 값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행동과 양식들을 수행하고 인간의 사고, 동기, 행위를 결정 또는 유보하는 데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과

행동을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 능력의 개념으로 노인의 주관적, 인지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의 척도이며,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와 행동에 따라 자기 효능감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성취 욕구를 유발시키며,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신체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우울감 해소와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아진다[20].

노인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려면 신체적 기능, 인지적 성향과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며,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환경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17][21-24].

한편 자기 효능감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실패 경험으로 노인들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해 자신 없어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사회활동에서 배제당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의 주요 요소가 된다[21][25].

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해 높은 관심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아지며, 노후준비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 중 정서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도 높고, 적응유연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체계 및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노년기 소외와 고독, 잉여여가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노후준비의 영역은 경제측면 뿐만 아니라 신체, 심리,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후준비 영역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각 각의 노후생활 영역에 따라 영향에 끼치는 요소들이 달라진다[27-30].

2.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자본

자기 효능감은 사회기술과 관련된 필요한 수행들에 대해 필요한 의지를 말하고,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마다 극복하는 의지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 요소들과 환경적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고 융합하는 추론적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기 효

능감이 낮은 노인들은 주변의 사회적 지지 공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환경을 방해하고 소외와 우울, 스트레스에 대하여 취약함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노인들은 주변 환경의 지지적관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26][31].

또한 자기 효능감은 사회적 활동을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봉사로 인한 사회적 자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2], 인간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이고 동기적인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나, 노인들은 사회 은퇴에 따라 자연스럽게 활동이 축소되고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감각 기능 등의 저하 등으로 인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32].

특히 노인들 각자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줌으로써 노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자아효능감은 인생 전반에 성취적 기능을 하고, 사회 인구학적인 변수와 금전적, 건강 수준을 제어하여 지각된 효능감은 중·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이어지는 시간동안 정서적·정신적 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노인의 심리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긍정적인 삶과 노후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며, 봉사활동 참여시간과 참여 기간이 많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자본의 참여와 함께 소속감과 동료애 즉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교류로 노후의 정서적인 영향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33][34].

3.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의 상실감과 우울증과 가족변화에 대한 핵가족화의 속에서 사회적 자본과 사회참여와 활동은 노인의 우울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4-6]. 노년기의 건강 악화, 경제적 능력 감소, 배우자와 동료, 친구 등의 상실로 가족이나 사회의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노인들의 삶의 질은 배우자, 자녀, 친척과 친구, 이웃 등과 같은 지역 사회와의 동시에 연계된 노인은 가장 강한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리하듯 인간은 누

구나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관계의 다양한 측면이 개인의 삶의 질과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은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양적 개체라 할 수 있다[7-11].

건강과 경제상태, 종교유무와 사회적 자본의 활용으로 정서적 측면과 여가적인 노후는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와 참여는 노후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또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신뢰와 네트워크의 유대관계를 통한 노인의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정서적 노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10].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는 시기인 만큼 생애에 대한 성찰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하게 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2][14][15].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 노인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활용은 높을 것이다.
- H2 : 노인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는 높을 것이다.
- H3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는 높을 것이다.
- H4 : 노인의 자기 효능감과 노후 준비에 사회적 자본은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S 시의 3개구를 대상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대상으로 신·구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 지역의 50:50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능한 최

대 평균적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자 및 교육을 받은 설문조사원 3명과 함께 노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기관의 도움을 받아 1:1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처	기관	설문지
경로당	3	90
노인대학	3	90
노인종합복지관	6	180
주민센터	6	180
합계	18	540

2016년 3월 20일~4월 1일 사이에 설문지를 배부하는 확률적 층화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 중의 540부가 회수되어 96.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는 누락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518부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총 518명 중 성별은 여자가 62.9%(326명), 남자가 37.1%(192명), 연령에서는 70세 이상-75세 미만이 23.6%(122명)로 가장 많고, 학력에서는 고졸이 30.5%(158명), 퇴직 전 직업에서는 자영업이 28.8%(149명), 가정주부가 27.8%(1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이 63.3%(328명), 종교에서는 개신교가 36.5%(189명),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36.5%(189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유형에서는 부부가 33.8%(175명), 총소득에서는 50만원 미만이 24.9%(121명), 주거에서는 자가 69.5%(360명), 노후준비시기에서는 준비 못함이 34.7%(180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적 자료 처리를 위하여 설문지의 코딩을 거쳐서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과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에 의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 비분해 노인들을 위한 면접조사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구 분		빈도 (명)	퍼센트			빈도 (명)	퍼센트
성 별	남자	192	37.1	합계			
	여자	326	62.9				
연 령	60세 이상-65세 미만	92	17.8	건강 상태	매우 건강	36	6.9
	65세 이상-70세 미만	91	17.6		건강	189	36.5
	70세 이상-75세 미만	122	23.6		보통	173	33.4
	75세 이상-80세 미만	113	21.8		건강하지못함	83	16.0
	80세 이상	100	19.3		매우건강 하지못함	37	7.1
학 령	무학	41	7.9	가구 유형	혼자	129	24.9
	초졸	129	24.9		부부	175	33.8
	중졸	89	17.2		결혼한자녀	125	24.1
	고졸	158	30.5		미혼자녀	84	16.2
	대졸 이상	101	19.5		기타	5	1.0
퇴직 전 직업	전문직	26	5.0	가구 총소득	50만원 미만	121	23.4
	사무직	90	17.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7	16.8
	자영업	149	28.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6	20.5
	일용직	58	11.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19	23.0
	가정주부	144	27.8		300만원 이상	85	16.4
	기타	51	9.8				
결혼 상태	기혼	328	63.3	주거 구분	자가	360	69.5
	사별	137	26.4		전세	84	16.2
	이혼	35	6.8		월세	54	10.4
	미혼	13	2.5		무상	12	2.3
	기타	5	1.0		기타	8	1.5
종 교	천주교	77	14.9	노후를 준비한 시기	30대부터	52	10.0
	개신교	189	36.5		40대부터	86	16.6
	불교	101	19.5		50대부터	115	22.2
	없음	135	26.1		60대 이상부터	85	16.4
	기타	16	3.1		준비못함	180	34.7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일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고, 셋째, 측정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적분석을 실시를 하였고, 각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해서 판단하였다. 넷째,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이 가능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 가설을 검증했으며,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해서분석 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두 번의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 도구를 보완 및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의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 자기 효능감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로 자기 효능감 척도는 [36]등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척도를 기반으로 [20]이 수정·보완하여 총12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기에 주어질 과제에 대한 목표에 성공적인 경험치와 필요한 행동을 위한 신념으로 개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효능감 4문항과 자신의 좋은 점과 가치를 나타내는 자기 수용감 3문항과, 자기 성취감을 나타내는 5문항으로 척도에 사용된 문항은 총 12개 문항으로, 응답범주는 리커트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자기 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7, 8번 문항은 역코딩 문항으로 역으로 점수 환산).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93으로 나타나 각 하위요인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노후준비

본 연구에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노후 준비에 관한 설문내용은[26][36-38]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신체기능을 잘 유지하며, 가족들과 좋은 관계와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정서적인 관계, 노후생활을 위한 절약과 연금등 경제적인 노후준비,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적 노후준비등 총 18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여가적 노후준비를 묻는 18문항으로, 응답범주는 리커트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노후준비의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25][36-39].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909로 나타났고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40][4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9][11][40-43]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가까운 관계의 신뢰를 묻는 3문항, 타인에 대한 호의와 내면화된 개인 규칙 및 규범에 대한 3문항, 지역사회와 친목 모임 등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3문항, 개인이나 주변의 연결망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3문항, 총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의 수준의 활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899로 나타났고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해서는 성별, 연령, 학력, 퇴직전 직업, 결혼상태, 종교, 건강상태, 가구유형, 가구총소득, 주거구분과 노후준비시기 등의 총 1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0.6 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신뢰도 분석 결과 자기 효능감 전체는 0.89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 전체는 0.899로 높게 나타났고, 노후준비 전체는 0.909로 높게 나타났다. [표 2]와 같이 나타났으며, 즉 모든 변수의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명	Cronbach's α
자기 효능감	.893
사회적 자본	.899
노후준비	.909

2.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표 3]과 같이 검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이란 측정도구에 사용된 변수가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미리 연구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4]과 같이, 독립변수인 자기 효능감이 종속변수인 노후준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 또한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p	AVE	개념신뢰도
자기 효능감	효능감1	←	1.000	.819				.614	.863
	효능감2	←	.951	.834	.047	20,352***	.000		
	효능감3	←	.828	.670	.053	15,740***	.000		
	효능감4	←	.876	.746	.049	17,927***	.000		
	효능감7	←	.824	.683	.124	6,635***	.000	.680	.733
	효능감8	←	1.000	.831					
	효능감9	←	.847	.607	.063	13,505***	.000	.632	.818
	효능감10	←	.997	.822	.053	18,689***	.000		
	효능감11	←	1.000	.786					
	효능감12	←	.941	.750	.055	17,068***	.000		
노후 준비	준비도13	←	.962	.755	.051	18,685***	.000	.668	.867
	준비도14	←	.982	.677	.061	16,215***	.000		
	준비도15	←	.889	.662	.056	15,869***	.000		
	준비도16	←	.985	.802	.049	20,272***	.000		
	준비도17	←	1.000	.819					
	준비도19	←	.958	.764	.050	19,117***	.000	.763	.906
	준비도20	←	.989	.864	.045	22,202***	.000		
	준비도21	←	1.000	.831					
	준비도23	←	1.000	.922				.752	.856
	준비도24	←	.747	.756	.113	6,634***	.000		
	준비도26	←	.947	.799	.055	17,361***	.000	.639	.898
	준비도27	←	.945	.807	.054	17,571***	.000		
	준비도28	←	.909	.701	.058	15,568***	.000		
	준비도29	←	1.000	.759					
준비도30	←	.998	.824	.040	25,247***	.000			
사회적 자본	자본31	←	1.000	.872				.740	.893
	자본32	←	.997	.910	.039	25,843***	.000		
	자본33	←	.839	.665	.050	16,909***	.000		
	자본34	←	.809	.748	.059	13,721***	.000	.664	.794
	자본35	←	1.000	.650					
	자본36	←	.794	.709	.060	13,199***	.000	.633	.796
	자본37	←	1.000	.686					
	자본38	←	.960	.688	.073	13,187***	.000		
	자본39	←	.841	.737	.061	13,902***	.000		
	자본40	←	.873	.797	.042	20,887***	.000	.721	.885
	자본41	←	1.000	.872					
	자본42	←	.863	.796	.041	20,842***	.000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p	RMR	GFI	CFI	TLI	RMSEA
기준값	-	-	-	.05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08이하
자기 효능감	113,354	32	.000	.037	.960	.964	.949	.070
노후 준비	210,949	81	.000	.029	.949	.973	.965	.056
사회적 자본	150,524	48	.000	.038	.952	.968	.955	.064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RMR, GFI, CFI, TLI, RMSEA가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자가 설정은 연구모형의 타당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자기 효능감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인 자기 효능감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1.423$, $p<0.001$).

즉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자본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자기 효능

감과 사회적 자본과는 별개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며 [19]의 연구와 본 연구를 지지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 수록 성공적인 경험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며,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통해 신뢰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하여 자기 효능감으로도 이어진다.

또한 각 개인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되므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증가하게 된다.

4.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인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405, p<0.001$). 즉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는[46]의 자기 효능감이 노후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건강을 위한 신체적 노후준비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행동에 영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와 상관관계 또한 긍정적이며, 개인의 신념과 자신감 또한 높게 나타나며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와 삶의 만족에 관련이 있다는 결과이다.

5. 사회적 자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가설 3>인 사회적 자본이 노후준비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198, p<0.05$). 즉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47]의 유사연구에서 은퇴 후의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에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

<가설 4>인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은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에 의한 매개 효과분석은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의 매개 효과 분석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경로값	경로값	경로값
자기 효능감	→	사회적 자본	.806**		.806**
자기 효능감	→	노후 준비	.548**	.364**	.911**
사회적 자본	→	노후 준비	.451**		.451**

** $p<.01$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0.01$).

이는 노인들의 자신감을 표현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 신체적인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4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보이고 있음으로 부분매개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와 같다.

문지를 배포하였고, 이중 54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51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자기 효능감이 사회적 자본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1.423$, $p<0.001$), 이는 일을 성공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평생교육에서도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자본과의 긍정적인 영향은[4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보며, 둘째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t=6.405$, $p<0.001$), [38]의 연구에서 자신이 어떤 일에 도전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외향적 도전추구에서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중, 노년층 모두 자기가 어떤 일에 성공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5.198$, $p<0.05$), 마지막, 자기 효능감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은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선행연구[21]의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 결과는 맥을 같이함을 알 수 있으며, 지역주민간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므로 자기 효능감 향상과 사회적 효능감에도 영향이 있다[19]. 이러한 결과로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를 모두 보이고 있어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 또한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가설이 채택되어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자기 효능감이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에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변화하는 IT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부담감, 위화감이 없이 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발굴뿐만 아니라 편리한 사용에 대한 적응 훈련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 간 노인복지서비스 격차 및 공백에 대한 대응 장치 마련,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전 연령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설계,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개선의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하게 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노

인복지서비스 및 인프라의 확대와 질적 개선, 그리고 지역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경제활동의 고용환경, 사회참여, 노인 돌봄, 그리고 주거환경 및 안전 영역별 개선 방안은 생애 주기적 사회참여의 기반 마련, 노인 돌봄 부담의 사회적 공유,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개인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 강화책으로써 사회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노인세대의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노인세대의 자기 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분석 결과, 노후준비의 구성 요소인 신체적인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그리고 여가적인 노후준비는 활동적 노년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의 노후준비와 노년기의 활동성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부분 매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노인들의 자기 효능감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자긍심과 자아만족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회문화적 부분의 능동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본 논문은 2016년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요약본임.

참고 문헌

- [1] 민세진, “우리나라의 고령화 취약성,” 한국경제학보, 제19권, 제2호, pp.49-80, 2002.
- [2] 강성욱, 하규수,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제111권, 제2호, pp.21-144, 2013.
- [3]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15.
- [4] 이종경, 이은주,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와 스트레스 및 자살 생각 감소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제34권, 제3호, pp.17-26, 2010.
- [5] 김동배, 신상범, 신수민,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298-303, 2012.
- [6] 김명일, 신혜리,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 간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과거 노후준비가 가지는 조절효과,”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pp.185-201, 2013.
- [7] 박경숙,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제34권, 제4호, pp.621-648, 2002.
- [8] 김영범, 박준식,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제24권, 제1호, pp.169-185, 2004.
- [9] 임중철,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0] 김경희, 이성국, 윤희정, 권기홍, “70세 이상 후기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6권, 제6호, pp.3889-3901, 2015.
- [11] 김태호,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2] Phyllis Moen, Donna Dempster-McClain and Robin M., & Williams. Social integration and longevity: Anevent history analysis of women's roles and resili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4, No.4, pp.635-647, 1989.
- [13]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37, No.4, pp.433-440, 1997,
- [14] 김효신, “노후준비와 우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3권, 제4호, pp.117-128, 2008.
- [15] 박창제,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4호, pp.139-166, 2008a.
- [16] 김민정,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7] 김연선, 셀프리더십이 팀워크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급호텔 Wine & Dining Restaurant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8] 김선, 셀프리더십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중년기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9] 김보경, 이진향, 김장락, 정백근, 박기수, “건강한 성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본과 지각된 건강수준과의 관련성,”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제11권, 제3호, pp.144-153, 2011.
- [20] 박인숙, 중·장년층의 자아효능감과 노후생활인식에 따른 은퇴준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21] 오영은, 농촌노인의 고독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사회적 자본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22] K. Lewin, 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 Transl. Fritz Heider & Grace M. Heider. New York: McGraw-Hill. 1936.
- [23]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79.
- [24]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25] 백인경,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6] 강유진, “한국 성인 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30대, 40대, 50대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제16권, 제4호, pp.159-174, 2005.
- [27] 김양이, 이채우,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9권, 제1, pp.52-82, 2008.
- [28] 이신영,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pp.205-224, 2009.
- [29] 최성재,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 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제29권, 제1호, pp.329-352, 2009.
- [30] 김재희, 김옥, “노인의 노후준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62권, 겨울호, pp.231-256, 2013.
- [31] 임왕규,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관계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32] 김우철, 노인의 운동행동 변화 단계에 따른 자기 효능감, 우울, 스트레스 및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33] 홍경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4] 박희봉, 이희창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pp.709-728, 2005.
- [35] 신상식,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36] A. Bandura, *Self-Efficacy in Changin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37] 배계희,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38] 김주성,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39] 임선미,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와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40] R.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4, No.13, pp.35-42.
- [41] J. C.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pp.95-120, 1988.
- [42] 임우석,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43] 최승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지속의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44] 김대업,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경기: 학현사, 2009.
- [45] 김주성, 최수일,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3호, pp.97-119, 2010.
- [46] 박지영,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노후생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8권, 제4호, pp.257-270, 2014.
- [47] 강신기, 중년층의 재부교육,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48] 박지원, 중년 남성의 댄스스포츠 참여를 통한 자아효능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9] 이정복, 노인평생교육에서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저 자 소 개

신 근 영(Kun-Young Shin)

정회원



- 2012년 :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6년 :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4년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겸임교수

▪ 2002년 ~ 현재 : 한국정보화진흥원 강사

<관심분야> : 장애인, 노인, 평생교육

고 재 욱(Jea-Ug Ko)

정회원



- 1991년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복지행정박사
- 2011년 :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3년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관심분야> : 노인복지, 정신건강, 복지행정, 지역사회복지